

조선이공대, 광주글로벌모터스 감사패 받아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29일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디지털전환(DX) 교육을 제공한 공로로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이하 GGM)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기자동차 부품 이해와 전기자동차 고전압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자동차산업 부품 분야 교육으로 구성됐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올해 7월 전기자동차 생산 돌입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 공장 시설 정비 기간 동안 조선이공대가 임직원 대상 전기자동차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자청년회의소, 장애인재활센터 물품 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광주여자청년회의소(회장 방주희)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해 쌀과 라면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후원물품 전달은 세계 전쟁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경제 위기 극복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취임한 방주희 회장을 비롯한 신입 집행부가 참석했다.

나현주 광주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 등으로 온정 나눔이 줄어들어 시기에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주희 광주여자청년회의소 회장은 "이번 물품 전달을 계기로 기부 문화가 확산하기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취임



홍승미(여·57·사진) 신임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이 취임했다.

2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홍 신임 청장이 제36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홍 청장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첫 여성 청장이다.

그는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병무청 대변인, 임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 전문가다.

그는 취임첫날 현안업무 집중을 위해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광주공원 현충탑 참배로 공식 임정을 시작했다.

홍 청장은 각과를 방문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수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29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고사항 및 의결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윤운철 광주태권도협회 부회장 등 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임원 김

삼선 이사 등 20명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고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계획 보고, 2023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총 4건의 보고사항과 의결사항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김진야 기자 jinggi@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 위기가정 희망풍차 지원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2024년 제1차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 위원회'를 열고 위기가정 14가구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14가구(생계지원 7가구·의료지원 2가구·기타 지원 3가구)에 35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희망풍차 긴급지원 수혜자는 163가구(생계지원 110가구·의료지원 16가구·주거지원 13가구·교육지원 3가구·기타 지원 35가구·중복포함)로 지원금은 총 3억 7300여만 원이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호남대 손병래 교수, 전남도지사 표창



호남대학교 손병래(사진)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29일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지원과 교육에 노력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손병래 교수는 새전남자동차전문기술사업조합 기술고문으로서 자동차 전문 정비인의 교육을 담당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지원과 교육에 기여해왔다. 또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상상공작소의 교육장비를 기반으로 지역내 모빌리티분야 종사자의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 지난해 13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손 교수는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최신화된 첨단장비를 구축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실습시설을 지역사회 모빌리티분야 종사자들에게 더 개방해서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식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미스터리 07:15 빅 블루 07:30 출동! 슈퍼월드 07:45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08:00 당동명 유치원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35 뽀롱뽀롱 뽀로로 08:50 샤샤앤 마일로 09:20 인간과 바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5:15 강신주의 장차 수업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쿠오쿠 내 새끼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17:25 미스터리야 17:40 그린조끼 구조대 17:55 한글용사 아이야(재) 18:1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완전 정복! 이탈리아 -남만은 운하를 타고, 베네치아> 21:35 한국기행 <허글 위의 겨울 2부 방어의 맛>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건축탐구 - 집 23:40 위대한 수업, 그래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0일(음 12월 20일 췌巳) ☎ 010-9790-8237 36년생 오래가는 못할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48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60년생 이익이 따르고 효율성이 높아진다. 72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84년생 구원으로 인한 압박이 깊으리라. 96년생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86 37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함이 나을 것이다. 49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61년생 뻥이 다 알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다. 73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85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97년생 진행한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41, 56 38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50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면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62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74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86년생 미혹되어 제대로 걸러지면 곧장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98년생 불합리하다. 행운의 숫자 : 10, 66 39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51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63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75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87년생 혼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자. 99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72 40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 없었다. 52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이 아니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64년생 갈망으로 가득이 집혔으니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6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88년생 가변적인 정황에 맞춰서 진행하자. 00년생 영귀함이 따르는 행운이 있도다. 행운의 숫자 : 12, 78 41년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53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임장이 일관되어야 한다. 65년생 굳이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는 없다. 77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89년생 목표에 성큼성큼 접근하고 있느니라. 01년생 팔 십은 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행운의 숫자 : 36, 97 42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4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 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자. 66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78년생 갈급한 외판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90년생 기법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02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54 43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5년생 순서와 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정에서 놓여 있다. 67년생 공금에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79년생 느낌이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야 뒤따라지 않는다. 91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03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92 44년생 시련은 알찬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니 틀림없다. 56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68년생 기본을 상하게 하는 이가 보인다. 80년생 머뭇하는 안 될 일이니 서둘러 이행해야겠다. 92년생 참된 국민으로 진입하고 있다. 04년생 추후도 변경하려 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9, 94 45년생 상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된다. 57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변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69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옳다. 81년생 가능성은 놓추지 말며 실재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93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해려 더 빠르리라. 05년생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55 46년생 학생과대학에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5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70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2년생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94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 불안정하다. 06년생 확실히 성취하는 시제이다. 행운의 숫자 : 09, 64 35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47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59년생 부지런함 이가 선점하게 되는 법이니 방심하지 말고 진력하여야만 목적을 달성한다. 71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83년생 재물이 나와지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해라. 95년생 문혀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28, 93